

태피터라고 하는 직물은

태피터(taffeta)를 총칭하는 것은 폴리에스터 · 나일론 · 아세테이트 · 큐프라 등의 필라멘트 직물로서 안감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태피터는 원래 견 필라멘트 평직물이었다. 태피터는 강한 광택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광택측면에서는 새틴(satin)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광택감은 태피터도 새틴도 같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태피터의 광택과 새틴의 광택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심하다. 웨딩 드레스로 맞춰보면 그 차이는 한층 명확하게 된다. 태피터는 금속판과 같이 딱딱하고 오목오목한 감을 느낀다. 새틴은 웨트하고 매끄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까닭에 인상은 다르다.

태피터에는 위사 방향으로 달리는 무수한 이랑이 있다. 그것이 음영을 생기게 함과 동시에 약간 뻗뻗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새틴에는 이러한 점들이 없다. 새틴도 태피터도 조직은 치밀하지만 태피터에는 새틴이 가지고 있는 볼륨감은 없다. 얇고 쿨한 느낌이 있다. 태피터 쪽이 튼튼한 것은 사실이다.

위사 방향에 이랑을 갖는 견직물로는 파일이라든가 그로스그레인(grosgrain, 또는 그로그랭(grograin)이라고 하며 견고하고 치밀하게 짠 리브가 있는 직물) · 산퉁(shantung, 위사에 마디가 있는 평직으로 짠 견직물) 등이 있다. 모두 위사 방향으로 뻗뻗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파일은 크고 평평한 이랑을 가지고 있다. 그로스그레인은 파일보다도 둥근 맛이 있는 딱딱한 이랑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비슷하지만 그러한 점이 다르다.